

##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최 성 근

《새날》신문이 창간된 때로부터 90년의 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적출판물의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새날》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의 발간을 통하여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고귀한 업적, 풍부한 출판보도활동경험과 방법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적출판물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신문 〈새날〉과 잡지 〈3.1월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하시고 그것이 혁명투쟁에서 위력한 사상적무기가 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95페이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출판물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적출판활동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것이다.

출판물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며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무한하다.

인류생활에 미치는 출판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정하고있다. 역사는 이미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출판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증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출판물을 대중의 교양자, 선전자, 조직자로 보시고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혁명적출판물의 역할과 임무를 정확히 규정하시고 혁명위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복무하며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진정한 혁명적출판물발간을 위한 가장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혁명가들과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옹호관철하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혁명적출판물의 기본임무가 있다. 또한 인민들에게 민족적 및 계급적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혁명적출판물의 중요한 임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간하신 출판물들은 혁명적출판물의 참다운 원형이다.

특히 《새날》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처음으로 창간하신 출판물로서 주체의 혁명적출판활동의 시원으로 된다.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혁명활동을 벌리기 위하여

주체16(1927)년 겨울방학기간에 무송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날소년동맹과 백산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확대해나가시면서 광범한 청소년들과 대중에게 사상적 양식을 줄수 있는 신문을 발간할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밤을 지새우시며 몸소 창간사를 비롯하여 많은 기사들을 쓰시고 새날소년동맹과 백산청년동맹의 핵심성원들이 쓴 글들을 편집하시면서 정력적인 활동으로 신문의 기사를 완성하시였다.

새날소년동맹과 백산청년동맹의 핵심들이 동원되어 한주일이상의 시간을 들여 100부를 손으로 써냈다. 드디어 주체17(1928)년 1월 15일 《새날》이라는 제호를 단 창간호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날 그때 무슨 정력으로 그 많은 글을 다 써냈던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에 깡그리 바치는 거기에서 둘도 없는 행복을 느끼였다고 하시면서 생신한 사상과 건실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피와 땀을 바쳐 가꾸고 이룩해놓은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새날》신문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간된 혁명적출판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으며 혁명군대와 인민대중을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혁명적출판활동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무기였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소년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고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혁명적출판물의 성격과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출판활동에서 성격과 사명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과 형식을 옳바로 정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새날》신문의 창간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신 창간사를 비롯하여 여러편의 기사가 실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창간사에서 우리 나라를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간악한 책동을 폭로하시면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고 《새날》의 사명을 천명하시였다.

《새날》의 기본사명은 광범한 청소년들과 대중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고 조직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을 반일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 있었다.

수백만 대중을 향해 동일한 사상과 투쟁구호를 일시에 신속히 선전하며 대중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데서 출판물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선전선동수단은 세상에 없다.

창간호를 낸 다음부터 《새날》신문은 김형직선생님의 친지들의 도움으로 구한 등사기로 수백부씩 밀어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길림에 오신 후에도 《새날》신문의 발간을 계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원고도 써주시고 편집방향을 가르쳐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문제

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이 시기 극심한 생활난과 신병으로 인한 모진 고통속에서도 강반석어머님께서서는 샅바느질로 한푼두푼 모으신 돈으로 신문발간에 필요한 종지와 등사원지, 등사잉크를 사오시고 밤을 지새우며 신문을 찍으시였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무송 시내와 멀리 말리허와 송수진, 삼도화원에까지 신문을 배포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도 원고를 쓰시고 신문을 등사하여 배포하는 사업에 정력을 바치시였다.

《새날》신문에는 지난 시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교훈과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방도를 밝힌 기사들이 많이 실리었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청소년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단결된 힘으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만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하였다.

《새날》신문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락탈정책,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를 폭로규탄하는 기사들도 많이 실리었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청소년들과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혁명투쟁의 필연성을 인식시켰다.

이밖에도 신문은 인류사회발전사를 체계적으로 게재하였으며 봉건적인 낡은 유습을 없애고 새로운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해설하였다.

《새날》신문은 발간되기 시작한 첫 시기부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혁명조직들과 광범한 군중속에서 널리 애독되였다.

당시 무송일대의 청소년들과 인민들은 신문을 발머리에서도, 야학에서도 읽었으며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깊이있게 체득해나갔다. 이 과정에 청소년들은 참다운 새 세대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광범한 대중이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눈을 뜨고 혁명적으로 각성되게 되었다.

실로 《새날》신문은 청소년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날》신문의 창간과 발행으로부터 시작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에 《볼셰비크》와 《3.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을 창간하시고 그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을 주체사상과 우리 혁명의 주체적로선,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그들을 조국해방위업을 위하여 한 목숨바쳐 싸우는 열혈의 혁명투사로 키우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내기관지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여 발표하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서광》에 실렸음)와 같이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론문도 있었으며 《3.1운동의 회고》(《3.1월간》 창간호에 실렸음)와 같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와 교훈을 인식시키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해방성전으로 불려일으키는 론설도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출판물들은 몇몇 인재들의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독자대중의 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였다.

이처럼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출판활동은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속에 아무것도 보장받을수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혁명적출판물전통의 튼튼한 뿌리를 마련하였으며 혁명적출판물들은 독자대중의 훌륭한 선전자, 교양자로, 영웅적위훈의 고무자, 투쟁의 적극적인 방조자로 되었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혁명적인 출판물의 발간을 통하여 출판선전활동의 고귀한 경험과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신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광범한 독자대중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집필, 편집, 발간되는 혁명적출판물들이 대중교양에 이바지하자면 그 편집내용과 형식, 부수와 배포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출판일군대렬을 꾸리는 문제로부터 출판물의 내용과 형식, 출판일군들의 활동방법과 사업기풍에 관한 문제, 출판활동의 물질적조건의 보장과 출판물의 배포비용에 이르기까지 출판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출판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출판물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출판일군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높은 실무적자질을 소유한 유능한 출판일군들로 준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혁명앞에 제기된 절실한 문제들과 독자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종다양한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 각계각층의 군중을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밖에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출판활동의 물질적조건을 튼튼히 마련하며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혁명적출판물을 광범히 배포, 보급하고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이 과정에 혁명적출판물의 본보기가 마련되고 출판선전활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닦아지게 되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형의 혁명적출판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출판활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계승발전되었으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출판보도활동의 전통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주체형의 혁명적출판보도물,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대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혁명적출판물, 《새날》신문